보도자료

보도일시	배포즉시	배포일시	2020. 3. 19.(목) 10:00
Migration Research &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Partner Organization of IOM MRTC		담당부서	연구교육실
		담 당 자	장주영 부연구위원

「이민정책연구원, 난민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연구 결과 발표」

난민 심사가 공정하다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하지 않아...78%

□ 이민정책연구원에서는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와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.

-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2019년 3월에서 5월에 전국 만 19세 이상 만 79세 이하 남녀 4,001명을 조사하였으며,
- 자세한 내용은 『난민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연구』(2019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<주요 내용>

□ 난민신청자에 대해 들어보았다는 비율은 71%,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에 대해 들어보았다는 비율은 각 50% 정도로 집계되었다.

□ **'난민'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단어 세 가지**를 응답하도록 한 결과, 가장 높은 빈도로 집계된 단어는 '가난'이었고, '전쟁', '빈곤', '제주', '불쌍', '외국인', '종교', '예멘', '인종', '배고픔'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(그림 1 참고). **경제적 빈곤과 관련된 단어가 전체의 20% 정도를 차지**하였다.

- 한국에서 난민 인정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(중복)응답하도록 한 경우에도 72%가 난민법상 난민 인정 사유가 아닌 빈곤을 선택하였다. 난민법상 난민 인정 사유를 선택한 비율은 인종(44%), 종교(36%), 국적(35%), 정치적 견해(32%),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인 신분(12%)이다.

□ 난민법상 난민의 정의를 설명한 후 **'난민심사가 공정하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'**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, **이에 동의한 비율은 40%, 보통이라는 비율은 38%**,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22%로 나타났다(<그림 2> 참고).

- 정부의 난민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은 현행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비율이 36%, 현행보다 관대해야 한다가 13%, 현행보다 엄격해야 한다가 51%로 집계되었다(<그림 3> 참고).

□ 특정 성별이나 연령대가 난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기존의 논의는 이 연구보고서의 분석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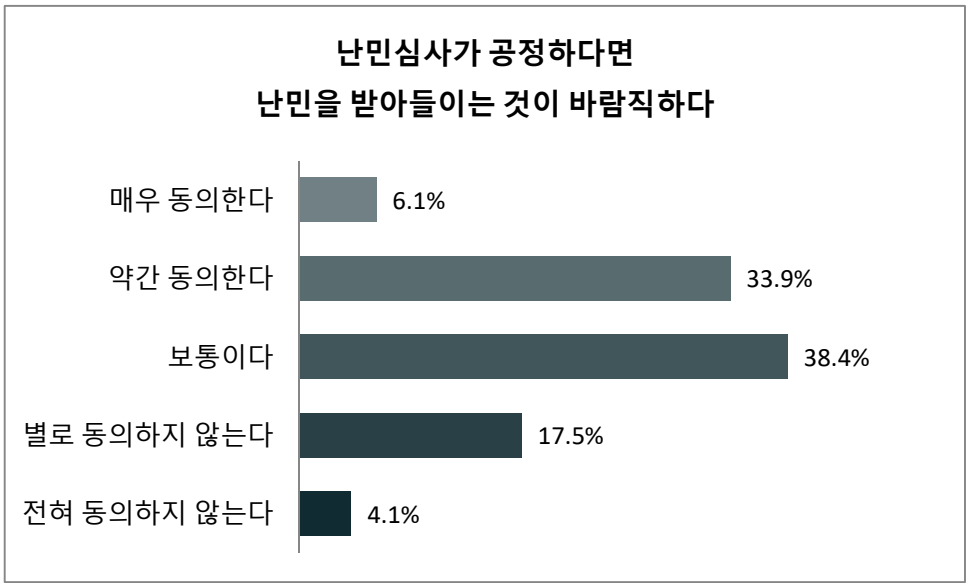
□ 이민정책연구원 장주영 부연구위원은 "국민들이 갖고 있는 '난민=빈곤'이라는 이미지가 유지되면 사회적·정치적 상황으로 박해의 위험에 처한 난민에게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정부와 언론의 난민 개념과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"고 강조하였다.

<그림 1> 난민 관련 연상 단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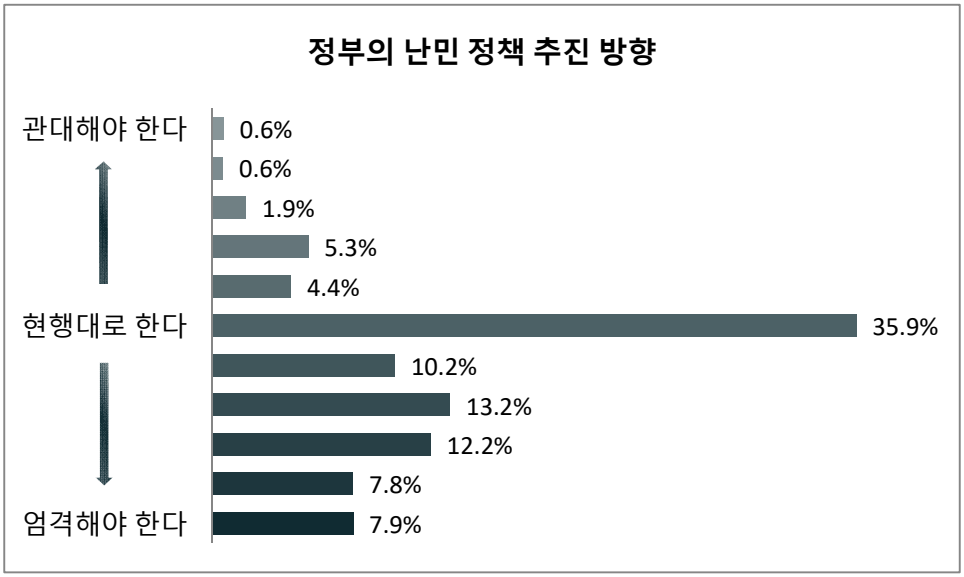


주: 크기가 크게 표시된 단어일수록 언급된 빈도가 많음을 의미함.

<그림 2>


난민심사가 공정하다면
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
매우 동의한다
6.1%
약간 동의한다
33.9%
보통이다
38.4%
별로 동의하지 않는다
17.5%
전혀 동의하지 않는다
4.1%

<그림 3>


정부의 난민 정책 추진 방향
관대해야 한다
현행대로 한다
엄격해야 한다
0.6%
0.6%
1.9%
5.3%
4.4%
35.9%
10.2%
13.2%
12.2%
7.8%
7.9%